

“국민 기본권·주권 침탈” 광주·전남 ‘尹 탄핵’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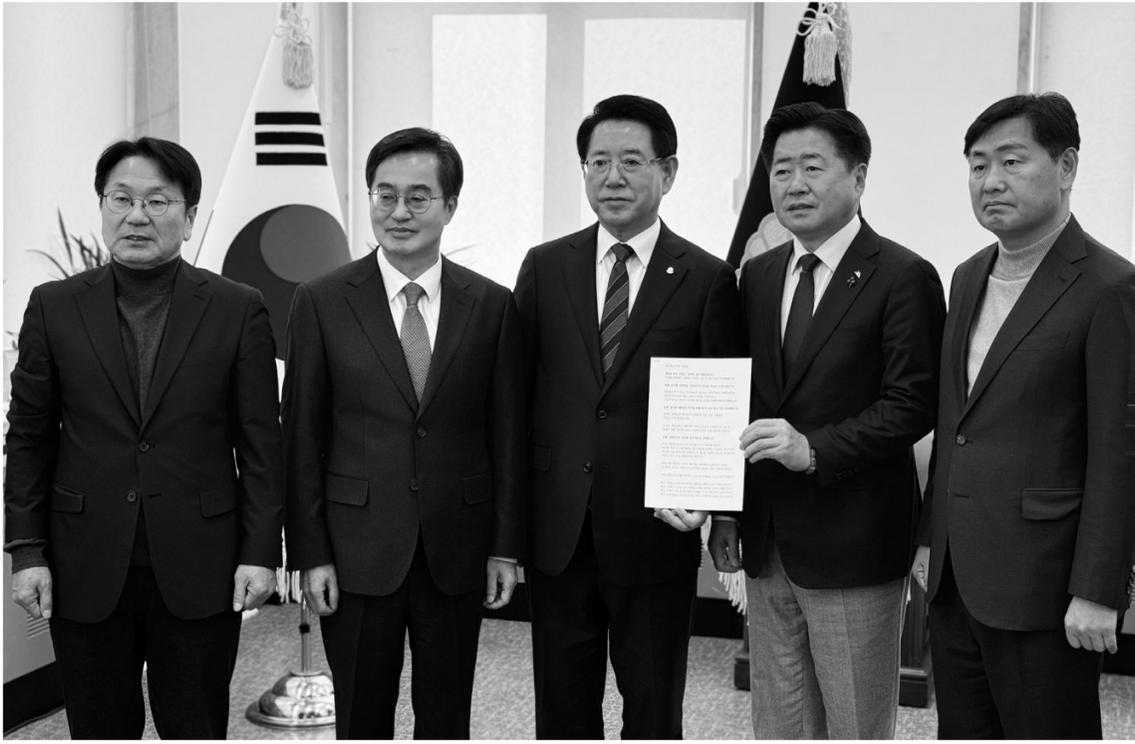
정치계 “불법 비상계엄…즉각 퇴진”
노동계 “헌정파괴범 체포·수사해야”
교육계 “민주주의가 파괴…참담함”
법조계 “사태 책임자, 강력한 처벌”
기자협 “5·18 비극 소환 정부 사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령’에 광주·전남지역 정치·노동·교육·법조·언론계 등 각계각층에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며, 국회의결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받기 어렵다”고 맹비난했다.

의원들은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면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고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5개 자치구 의회는 별도 성명서 발표 없이 민주당 주최 국회 앞에서 열리는 ‘비상계엄 규탄 집회’ 참석을 위해 곧장 상경했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잠정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강기정(왼쪽부터) 광주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령 선포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1면

더불어민주당 제공

나주시·목포시·함평군·보성군·장흥군·무안군의회의도 연이어 성명을 내고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지역 야3당도 규탄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등 야3당은 성명을 통해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

화 행위에도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고 강조했다.

지역 노동계와 교육계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국가를 사유화하고 가족과 자신의 범죄 행

위를 은폐하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자행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범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구속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도 순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벼랑 끝까지 몰린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며 “탄핵을 넘어서서 개헌

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감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일선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당부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밤의 비상계엄은 우리 모두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긴박한 상황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5·18 광주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현장에선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에 흔들림 없이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역 법조·언론계도 들끓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선언한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계엄 사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밤중의 계엄령 발표로 광주는 45년 전을 떠올렸다. 매년 5월 18일마다 상기되는 비극이 다시 한번 눈앞에 펼쳐졌다”며 “아직도 아픔의 땅에서 살아가는 광주·전남 시민과 기자들에게 다시 트라우마를 안긴 윤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여야 의원 190명은 이날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25분께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계엄 후폭풍’ 광주·전남 행정기관·의회 일정 차질

시·도지사, 행사·회의 일정 등 취소
시·도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연기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후폭풍이 지방행정기관과 의회에까지 미치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 이 이날 오전 11시 예정됐던 광주 주민자

치 공동체 한마당과 오후 2시 투자진흥지구 유치기업 협약을 전격 취소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한다 이어 낮 12시 국회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주최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앞서 강 시장은 이날 새벽 4급 이상 간부를 긴급 소집했으며, 5개 구청장, 시의원, 시민사회 대표, 종교단체, 대학 총장 등과 비상계엄 무효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5일부터 8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행정부시장이 대신 참석토록하고 비상계엄령 후폭풍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이 민주당 소속 전국 지방의원들에게 국회로 집결하라는 소집령을 내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중인 지방의회에도 계엄령 여파가 미치고 있다.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전체 23명 중 21명으로 이들은 이날 새벽 비상계엄령 선포 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비상연석

회의에 참석했다.

계엄령 선포로 지방의회와 정당 활동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확산하면서 한때 지방의원들이 긴장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각 상임위원회별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전격 연기하고 국회에 집결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전남도의회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연기하고, 국회 시국회의 상황을 지켜본 뒤 오후 심의 속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성현 기자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채출 공고)

부강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함)와 주식회사 창해전력(이하 “을”이라함)은 각각 2024년 12월 0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합병 대상 제50조의2 규정에 따라 “갑”의 그 재산(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사업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갑”의 분할된 전기공사사업의 재산,부채등 “갑”의 전기공사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여 상법제 50조의2 제3항의 의거 분할된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사가 되리니,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1. 분할합병대상 : 전기공사업 (전남-002846)
2. (갑) 상 호 : 부강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1길 130(묘도동)
대표이사 : 김현숙
3. (을) 상 호 : 주식회사 창해전력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로 147, 4층 사내이사 : 박경애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채출 공고)

주식회사 신흥전력(이하 “갑”이라함)과 주식회사 천승산업(이하 “을”이라함)은 각각 2024년 12월 0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합병 대상 제50조의2 규정에 따라 “갑”의 그 재산(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사업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갑”의 분할된 전기공사사업의 재산,부채등 “갑”의 전기공사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여 상법제 50조의2 제3항의 의거 분할된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사가 되리니,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1. 분할합병대상 : 전기공사업 (광주-002838)
2. (갑) 상 호 : 주식회사 신흥전력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279번길 124, 1층 (합정동)
3. (을) 상 호 : 주식회사 천승산업
주 소 : 전라남도 곡성군 일민면 매월매평길 4
대표이사 : 서은희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直通 062-519-0710

全南日報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돈

외상대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받아드립니다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도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